

SK케미칼 김창근 부회장 “릴레이 면담”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이 직원들과 맨투맨 미팅을 통해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SK케미칼에 따르면, 김창근 부회장은 5월부터 하루에 2-3시간씩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배석자가 없는 가운데 직원들과 일대일 미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장급 40여명이 김창근 부회장과 면담을 했고 2006년 상반기까지 100여명의 임직원이 김창근 부회장과 개인적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며 “김창근 부회장이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직원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들도 최고 경영자와 스킨십을 강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저작권재(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08>